



기획특집

과소비, 더 이상은 안된다 2

# ‘알뜰 구매’와 ‘물품 재활용’만이 과소비 잡을 수 있다

91년 한 해는 과소비 문제로 나라 전체가 떠들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의 유명 일간지에서조차 비판의 소리를 높인 우리의 과소비 행태, 과연 일대 전환시킬 묘책이 없는 것일까. 과소비를 막고 알뜰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절약의 지혜를 알아본다.

■ 글/유광선<르포라이터>

■ 일러스트/이건모

‘3년 전만 해도 1만원이면 일주일 잔거리를 사는 것이 가능했으나 요즘은 3만원을 들여도 턱없이 부족할 때가 많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자리를 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보다는 자고 나면 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있는 것이 문제다’

살림을 사는 주부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부들의 항변이 전혀 과장된 게 아니라는 걸 체험으로 느끼고 있다.

물가는 83년부터 87년까지는 연평균 상승률이 2~3%대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다. 3%선이 깨지기 시작한 것은 88년으로 이때부터 물가 안정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자리수(연간 물가 상승률 8.4%) 이내로 물가가 잡혔다고 발표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 수치가 턱없이 낮게 매겨졌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력키금성경제연구소의 90년 체감물가지수를 보면 지수물가와 체감물가의 차이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식료품 등 구입 빈도가 잦은 생활 필수품과 개인 서비스요금 및 주거비 동향 등을 근거로 산출한 이 통계치를 보면 우리의 체감물가는 정부의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8.6%보다 8.3% 포인트가 높은 16.9%로 조사된 것이다. 체감물가를 자극한 대표적인 품목은 주거비와 식료품으로 각각 32.4%와 27.8%나 올랐다.

이런 실상 때문에 소비자들은 3년 전에 비해서 분명히 소득은 늘었지만 살림 살이는 어려워지면 어려워졌지 나아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 치솟는 물가 원망하면서 과소비는 자제할 줄 몰라

그러나 문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임에도 돈을 평평 쓰는 과소비 풍조가 사회 전반

에 만연돼 있다는 점이다. 또 합리적인 가계지출 계획을 세우는 가정도 드물고, 저렴한 구매를 위해 노력하는 생활의 지혜도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에서 콩나물을 살 때는 1백~2백원을 아끼기 위해 실량을 벌이는 주부가 몇 십만원씩 하는 유명브랜드 의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구입한다든지, 18평 짜리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도 자가용을 굴린다든지, 집안 분위기 단장에 과도한 비용을 쏟는 등 기형적인 소비패턴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한정된 수입으로 알뜰한 살림을 꾸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일년 단위로 예산 계획을 꼼꼼히 짜야 한다. 사용 연한이 다 된 내구재를 하나씩 점검,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의류나 그릇은 갖고 있는 품목을 목록으로 작성해 놓

최근 우리 사회의 과소비문제가 심화되면서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과소비 추방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사진은 영등포구 여성단체연합회의 결의대회 장면.





가전제품을 소매점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하는 용산 전자상가엔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알뜰 구매 위한 서울시내 도매시장

품 목	시장 또는 상가
가전제품	용산 전자상가 17~18동 세운상가
조명기구	청계천 조명상가(청계천 4가 운상가 1~2층)
주단·침구류	동대문종합시장·광장시장
시계	종로 4가 시계골목
그릇	남대문 시장내 그릇도매상가(C 동과 D동 3층)
카펫	회현동 카펫골목(남대문시장 부근)
스포츠용품	동대문 운동기구상가(동대문운 동장 부근)
철제기구 및 부품	을지로 4가 철제 부품상가
가정용 의료기기	종로 3가 의료기기 상가
건어물	을지로 5가 중부시장
축산물	마장동 축산물시장
신발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청계천 7 가 청평화시장 맞은편)
커튼	동대문커튼도매상가(종로5가 광장시장내)
벽지	방산동 종이골목(중구)
문구류	창신동 문구도매상가·남대문시 장내 문구골목
한약재	경동시장부근 한약상가
약기	낙원동 약기상가
생활공예품	남대문 대도상가 2층

으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꼭 필요한 것만 사는 데 도움이 된다.

세째, 물건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2~3일 정도 생각하고 꼭 그것을 사야 되는지, 혹시 집에 있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는 없는지 검토한다.

넷째, 상품을 구입하면 우선 애프터서비스센터 전화번호를 가계부에 기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도 확인해 둔다.

다섯째, 비싸고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고급 쇼핑공간은 출입을 삼가한다.

여섯째, 간단한 주택 수리는 가족들이 함께 한다. 요즈음 인건비가 워낙 비싸 가게 경비를 줄이기 위해선 불가피한 일이다. 일례로 목수의 일당이 7만원, 페인트공은 6만~7만원, 도배사는 5만원이다.

30평짜리 아파트의 문틀·문·불박이장 등을 래커 칠하는데 드는 비용은 60만원인데, 원재료비는 15만원 정도이다. 45만원이 인건비인 셈. 집안 수리를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가게 경제에 보탬이 된다.

일곱째, 의류·가전제품·중고품·농수축산물 등을 싸게 판매하는 시장정보를 수집, 적극 활용한다.

여덟째, 눈에 보이지 않는 절약을 생활화한다. 수도물·전기·가스·가정용 소비재에 대한 절약 방법을 생활화 한다.

### 대책 1

## 전문도매시장을 적극 활용한다

### 품목별 도매시장 알아두면 생활비 20~30% 절감 가능

상품의 가장 단순한 유통 경로는 '제조원→도매상→소매상→소비자'로 이루어지며 상품 가격은 도매상에 가까울수록 낮아진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도매상이 운집한 전문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매상가에서도 일반 소비자

들을 상대로 소매를 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매상을 적극 활용한다. 물론 소매상인들에게 넘기는 도매가보다는 10% 이상 비싸게 받지만 그래도 소매가에 비하면 20~30% 이상 저렴하기 마련이다.

전문도매시장에서 쇼핑하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에 제품의 카탈로그나 백화점에 진열된 상품을 보고 살 물건의 모델번호와 가격을 미리 확인, 가격과 구입조건을 비교한 후 구입한다.

둘째, 일반적으로 오전 9시~

오후 1시 사이가 소매상인들의 발길이 뜸한 편이므로 이 시간대를 이용하는 것이 상품 선택에 유리하다.

셋째, 물건을 산 후 상호명·대표자명·전화번호가 명기된 간이세금 계산서를 꼭 받아 보관하여 사후 서비스 근거를 마련해둔다.

넷째, 도매시장의 상가별 특성을 파악해두면 쇼핑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 유명메이커 상설할인매장

업 체 명	연 락 처
제일모직 하티스트	상계점 (938-1264), 영등포점 (678-2891), 서울역점 (313-3564), 불광점 (355-1211), 과천점 (562-9401)
반도패션	상계점 (939-4775), 개포점 (572-7604), 여의도점 (787-5795), 명일동점 (487-8684), 독산동점 (860-8515)
논노	서초점 (587-1078), 홍제점 (736-4838), 상계점 (937-1142), 등촌점 (699-5000), 세로나점 (778-8704)
에스에스패션	천호동점 (477-9981), 종로4점 (272-5443), 종로5점 (266-8000), 서울역점 (362-4413), 영등포점 (631-6369)
서광모드	신길점 (844-3087), 본사점 (855-3281), 부평점 (032-518-3871)
등일레나운	본사점 (513-5330)
크레송	과천점 (502-0722)
산한인터내셔널	장안점 (248-7883), 문정점 (448-2251)
캠브리지멤버스	세로나점 (754-8077), 퇴계로점 (268-4934), 영등포점 (678-4429), 중계점 (949-1881), 잠실점 (421-6957), 광화문점 (723-2191)
모라도	본사점 (699-2511)
세라비·센스	서초점 (552-7844)
대현	노원점 (947-9406)

다섯째, 여러 군데의 점포를 둘러보고 물건을 구입해야 한다.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도 가게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

여섯째, 상가의 1층보다는 2층이나 3층이 전문 도매의 성격이 보다 강하다. 또 단일 품목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 대책2

## 의류는 할인매장을 이용한다

### 유명 상표 30~80%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어

품질에 전혀 손색이 없는 유명상표 제품을 30~80% 싸게 판매하는 곳이 '상설할인 매장'이다. 패션성이 강한 의류를 취급하는 매장이 대부분으로, 한 벌에 30만~40만원을 웃도는 고급의류들이 이곳에선 불과 15만~20만원 선에 판매된다.

재고의류 매장이지만 매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제품 창고에서 재고가 된 의류도 많아 디자인·품질이 정가품에 비해 전

혀 손색이 없는 경우가 있다.

### 박음질 상태와 안감, 부품 등 꼼꼼히 살핀 후 구입

그러나 간혹 결함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제품처럼 진열상태가 좋지 않아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실제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상설할인매장을 성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령 7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계절이 바뀌는 때를 이용한다. 2월말, 5월초, 8월말, 11월초에 각 계절의 상품이 출하된다. 남들보다 앞서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있다.

둘째, 박음질이나 안감을 꼼꼼히 살핀다. 옷을 살 때는 우선 안쪽을 살펴보는 게 좋다.

셋째, 여벌 단추가 있는 것은 믿어도 좋다.

넷째, 지퍼와 단추는 반드시 열어 보거나 닫아 보아서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다.

유명 의류 메이커에서 운영하는 '상설할인 매장'은 재고의류를 30~80%까지 저렴한 가격에 판매, 알뜰 구매장으로 애용되고 있다.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매달 2회씩 실시하는 '시민알뜰장'은 이웃끼리 중고물품을 나눠쓰는 장(場)으로 정착되고 있다.

다섯째, 스커트는 치마단이 생명이다. 안감이 제대로 붙어 있으면 안심할 수 있다.

여섯째, 확고한 쇼핑 기준을 정한다. 자신이 싫어하는 색상은 피하는 등 미리 쇼핑 방침을 정해 두는 게 좋다.

일곱째, 자신이 갖고 있는 옷을 반드시 체크한다. 옷장에 있는 옷의 디자인과 색상 등을 미리 살펴보고 어떻게 매치시킬까를 구상해본다.

### 대책3

## 중고품은 재활용한다

### 중고품 교환시장 통해 필요한 이웃과 물물교환

집집마다 아이들이 커가고 살림이 늘어나면 옷가지, 주방용품, 가전제품, 학용품 등 떨쩰어진 하나 쓸모가 없어지는 물건이 많다.

재활용이 가능한 이런 물건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것이 중고품 교환시장.

서울시내 각 구청별로 매달 2회씩 실시하는 '시민알뜰장', YMCA·YWCA·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의 '알뜰시장' 중고품 전화매매를 알선하는 '중고물품정보센터'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알뜰시장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가 장소 선정, 물건 접수 및 보관의 행정적인 면을 돕고 새마을부녀회가 개장에서 파장까지의 모든 실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실무를 맡은 쪽에서는 기증된 것이나 판매를 의뢰한 물건들을 옷가지, 가전제품, 책, 생활용품 등으로 구분하고, 알뜰장이 서기 전 가격표를 붙여 놓는다.

또 자기가 거주하는 동사무소에 알뜰장이 서기 3일 전까지 이름, 집주소, 팔고 싶은 물품명 따위를 알리면 된다. 이렇게 하

는 까닭은 장이 선 날 잡상인들이 들어와 분위기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알뜰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에는 남의 손을 거친 물건인 만큼 요모조모 잘 살펴보아야 한다. 또 꼭 필요한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실제로 쓰지 않으면 집안 한 칸에 버려져 공간만 차지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 구청 및 사회단체의 중고시장 활성화 추세

서울YMCA는 '소비자 한마당'이라는 명칭으로 알뜰시장을 개최한다.

소비자한마당에 참가하는 방식은 4가지. 교회 동우회나 부녀회 등 주변 공동체내에서 물품을 모아 회원들이 나와 팔거나 물물교환을 하는 방식(참가비 1만원), 시민이 직접 나와 물건을 판매하는 방식, 시민중

제실에 매물의 위탁판매를 의뢰하는 것, 물건을 기증하여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쓰게 하는 방법 등이다.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앞으로의 일정에 관한 문의는 YMCA 시민중계실(734-3904)로 하면 된다. 서울 YWCA(777

-5725~9)도 물건을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자’는 ‘아나바다’장터를 10월 중순경 전국 16개 지방에서 열었다.

물건을 행사 5일 전까지 YWCA회관 각 지부에서 접수한다. 가구·가전제품·그릇·책·액세서리·구두·장난감·잡화·의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건은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고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실련에서 주관하는 ‘알뜰가게’(231-6276)는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을 대신 팔아주거나 기업체에서 기증받은 재고상품에 대한 할인판매도 하는 곳이다.

알뜰가게는 입지 않는 옷,



경제정의실천연합에선 쓰지는 않지만 버리기엔 아까운 물건을 팔아주거나 기업체에서 기증받은 재고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알뜰가게’를 운영중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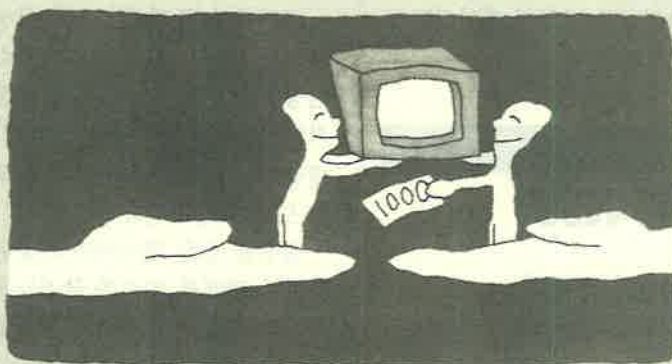
## “중고품 거래운동으로 과소비 해결”

■ 박문숙(37세·경실련 알뜰가게 사무국장)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 현상으로 진단되고 있는 과소비는 경제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자원의 파다한 소모로 인해 야기되는 부존 자원의 고갈, 쓰레기로 비롯되는 환경 오염까지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결국 과소비는 개인의 가정경제에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터전까지도 잠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뜰살림을 통한 물자 재활용에 대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돼야 할 것이다.

경실련에서 운영하는 알뜰가게는 이러한 의도를 갖고 시작됐다. 즉 집안에



서 사용하던 물품이 이사, 새상품 구입 등의 이유로 이용가치가 없어질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싼 값으로 넘겨 상품이 제 수명을 다하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알뜰가게인 것이다.

자원의 공유화, 고물가 시대의 알뜰살림 꾸미기에도 도움이 된다.



농수축협에서 각기 운영하는 직판장은 질 좋은 농수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책, 장난감, 신발, 주방기구, 집기, 기타 생활용품 등을 지중반 이하 값에 판매한다. 또 가구·소파·가전제품·비싼 옷 등 값이 제법 나가는 물건 등의 위탁판매를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물건을 대신 팔아주고 판매가의 50%를 위탁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개장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하오 4시까지이다. 이곳에선 정농생활협동조합의 무농약 유기농산물도 판매한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각종 중고품을 소비자끼리 직접 팔고 살 수 있는 곳이 '중고 물품정보센터'이다.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센터에 전화로 팔고 싶은 상품과 희망 판매가격을 알려주면 센터는 그러한 물건을 사고 싶다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거래는 당사자끼리 직접한다.

중간 마진없이 쌍방이 직거래를 함으로써 가격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전국에 43개 정보센터망이 있어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도 편리한 점이다.

이 센터를 이용할 사람은 일단 전화연락을 한 후 매물 1건당 3천원의 등록비를 온라인으로 입금하면 센터를 통해 2~3일내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고 한 달이 지나도록 못팔면 등록비를 되돌려 받는다.

매년 등록비를 내고 거래하는 게 귀찮으면 회원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15만원 이하의 물품을 내놓은 경우, 회비1만원을 내면 3년간 등록비 없이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중고물품정보센터 서울본사(867-3316)로 연락하면 전국 각 지사망의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대책4

### 농수축산물은 직판장을 이용한다

####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직판장, 가격 싸고 품질도 우수

20~30대의 젊은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직판장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알뜰시장으로 정착되고 있다.

대부분 아파트 단지내에 매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부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하므로 품질을 믿을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

또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1백% 반품을 해주는 등 품질 못지 않은 서비스로 소비자들 많이 찾고 있다.

서울에 개설된 농어민직판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가격은 저공해쌀 80kg 1가마니에 11만

## “우유팩을 재생하여 화장지로 재활용”

단지 물건을 아껴 오래 쓴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상품을 재활용한다는 쪽으로 소비자 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웃 일본이다.

‘대량 소비시대에서 리사이클 사회로’, ‘리사이클 시대의 도래’ 등 요즘 일본의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헤드라인이다.

우유팩 수집을 예로 들어보자. 일본의 주부들은 설거지때 아이들과 식구들이 마시고 난 우유팩을 싱크대에서 정성껏 씻는다. 그냥 씻고 마는 것이 아니라 리미로 다리는 주부까지 있다.



‘일본 전국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우유팩은 9백만개로, 그만큼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에 높이 8m 직경 16cm 짜리

나무가 6천개 없어진다.’ 우유팩은 최고 양질의 종이로 만들기 때문에 한 달분 우유팩 30개면 다시 재생해 화장지 5개를 만들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접한 주부들이 공동체 단위로 우유팩 재이용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일본 우유팩 회수운동의 또 하나 특징은 모여진 우유팩을 회수업자에게 팔고, 그 금액을 대부분 사회사업에 사용한다는 점. 자원의 재활용과 알뜰살림의 정신 이웃을 아끼는 마음이 모여진 결과가 바로 일본의 물자절약운동이다.

2천~12만원, 유정란 10개 1천5백원, 고추 상품 한근당 5천2백원 정도이다.

연기농어민 직판장 I (424-2317), 연기농어민 직판장 II (935-9430), 장수농어민직판장 (843-8860), 함양농어민직

판장 (540-0538), 아산농어민 직판장 (651-9372), 영광농어민직판장 (606-3700)이 서울에 매장을 운영중이다.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111의 5번지 산림조합중앙회 건물 1층에 설치된 임산물 직매장도 찐

값의 자연식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산림조합 임산사업소가 86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이곳 임산물직매장은 버섯·나물·매실·계피 등 식품류에서 교자상·약탕기·돌솥과 같은 생활용품, 제기류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갖춰놓고 손님들을 끌고 있다.

산지의 생산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매장에 나와 중간유통 단계를 거치지 않은 물건을 20~30% 싸게 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산림조합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창원 등 전국에 40여개의 체인점을 갖추고 있다.

서울 직판장 (416-9700)의 경우,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일요일은 쉰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농협 직판장과 수협 직판장을 활용하는 것도 알뜰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

최근 농어민 후계자들이 운영하는 ‘우리 농산물 직판장’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